

## 현장여론

# 미세먼지가 농사 및 농촌 삶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본 자료는 연구원이 전국 시·군에 농업경영인 1명씩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KREI리porter가 보내온 농촌 현장 여론과 정책제언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로 가감 없이 요지만 정리하였으며, 연구와 정책에 활용되길 바랍니다.(현장의 소리 전문은 KREI리porter 사랑방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7. 5. 16. ~ 5. 31.(총 13건)
- 수집대상: KREI리porter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 □ 미세먼지가 농사 및 농촌 삶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농업인들은 야외활동이 많고, 특히 한창 농번기에는 하루 종일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농업인 스스로가 채양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라도 해야 하는데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착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지역 보건소나 행정기관에서 미세먼지 피해 예방지침을 알리고, 공기청정기를 저렴하게 보급한다든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일괄 구입해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최○○, 충남>
- 농업은 식량 생산만이 아닌 국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외출을 삼가게 되면 농촌 체험이나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세먼지의 발생이 국내 오염원의 제거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빠른 시일 내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 바람.<이○○, 충북>
-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을 삼가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나, 농촌의 작업은 대부분 야외활동이고, 체력적으로 힘들어 호흡을 깊게 들이 마셔야하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임. 현재까지 중국 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외교적 정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대책을 마

## ㉔ KREI리porter 현장여론

런해주기 바람.<김○○, 경북>

- 오대산 깊은 산골짜기에 살아 맑은 공기만 마시다 얼마 전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던 날 외출을 해보니 목이 아파 오래 외출하기가 힘들었음. 그날 이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농작물은 어떻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지 앞으로 농사짓는 것이 걱정임.<송○○, 강원>
- 야외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농업 여건 상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를 중심으로 건강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채소, 과일 등 농작물 또한 미세먼지가 붙어서 깨끗이 세척해야 먹을 수 있고,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축사에 미세먼지가 들어가 가축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음. **농업인은 야외 작업 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도, 교육하여야 하며, 농작물은 재배, 보관, 세척 요령 등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면 좋겠음. 사람,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장·단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임○○, 경기>
- 농업에 종사하면 하루 종일 미세먼지나 황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농촌에서 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는 행위나 자동차 매연만 줄여도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벽보, 현수막 등을 내걸어 아주 사소한 실천부터 시작해 우리 스스로 건강한 공기와 맑은 햇볕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김○○, 경북>
-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져 노출을 자제하는데 신경 쓰고 있음.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기관지, 폐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병도 불러온다고 함. 보통 어린이와 노약자가 질병에 취약한데 이 중 노약자가 많은 농촌지역은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됨. 또 작물 재배나 가축 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임. **농촌지역에도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안내하는 전광판을 설치하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도 고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전○○, 경남>
-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수록 비닐하우스에 쌓이는 양이 많아 햇빛투과율을 약하게 할 것이며, 식물 잎사귀에 붙어 광합성을 방해하는 등 농작물의 피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 기상문제로 보아 이렇다 저렇다 대책 마련이 어렵지만, 환경이 주는 경고로 받아들여 원인 파악에 힘쓰고 그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임.<변○○, 강원>